

英 존스 총리 취임...내각 구성 본격 착수

보수당 경선 66% 지지 당선 엘리자베스 여왕 정식 임명 "10월까지 브렉시트 완수"

보리스 존슨(55) 전 외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제77대 영국 총리에 공식 취임한다.

존슨 총리 내정자는 전날 발표된 집권 보수당 당대표 경선 투표에서 보수당원 9만2천153명의 표를 얻어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에 승리했다.

존슨 내정자는 약 16만명의 보수당원 중 87.4%가 참여한 이번 우편투표에서 66.4%의 지지를 얻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인 지난 2016년 7월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취임한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 '총리 직의 응답을 마친 뒤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마지막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런던 버킹엄궁을 찾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신임 총리 선출 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어 존슨 내정자가 버킹엄궁을 찾아 여

브렉시트에 대한 보리스 존슨 생각은?

브렉시트 강경론자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55)

- 10월 31일 브렉시트 단행할 것
- '노 딜'(No Deal) 브렉시트도 불사하겠지만 가능성은 극히 희박
- 유럽연합(EU)과의 파트너십과 영국 자주권 회복 사이 균형 중요
- 일단 EU 측과 재협상, 합의 도달 기대 (EU 측, 재협상 없음 강조)



왕을 알현하게 된다.

여왕은 존슨 내정자에게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 존슨 내정자가 "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 여왕은 "(총리로서) 하원의 신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공식으로 알린다.

존슨 내정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통치 기간 중 열네 번째로 맞는 총리다.

정식 임명 후 존슨 총리는 곧바로 총리

관저로 돌아와 관저 앞에서 소감과 국정 비전 등을 담은 취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편 필립 메이와 함께 했던 전임자 메이 총리와 달리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존슨 총리는 홀로 총리관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스물네살이나 어린 여자친구 캐리 시먼즈(31)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고

려해 이날 함께하지 않고 며칠 뒤 총리관저로 이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신임 총리는 빠르면 이날 저녁 재무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 등을 시작으로 주요 각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각의 '남버 2'인 재무장관에는 도미니크 랩 전 브렉시트부 장관,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맷 핸콕 보건부 장관, 리즈 트러스 재무부 수석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여성 각료 중용 계획을 밝힌 만큼 앰버리드 고용연부 장관, 페니 모돈트 국방장관, 앤드리아 레드섬 전 하원 원내대표, 에스더 맥베이 전 고용연부 장관 등이 주요 부처 장관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내각 구성 작업은 목요일(25일) 또는 금요일(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 신임 총리가 내각 임명을 완료하면 26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한 곳을 공식 방문하거나,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에 브렉시트 재협상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존슨 총리는 경선 승리 후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해 그것이 가져올 모든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독도 인근 영공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 /연합뉴스

"중·러 독도 인근 초계비행은 군사동맹 시험"

CNN 분석 "실질적 합동훈련"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에서 함께 초계비행을 한 것은 양국이 군사동맹을 타진하는 행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푸틴과 시진핑의 군사동맹이 태평양에서 혼란(chaos)을 일으킨다'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태평양에서 싹트기 시작한 군사동맹의 범위를 시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CNN은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고,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전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에 주목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 공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장거리 군용기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첫 번째 연합 공중 초계비행을 수행했다"며 아태지역에서 중국 공군과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러-중 포괄적 파트너십 심화 및 발전, 양국 군 협력 수준 향상, 공동 작전 수행 능력 제고, 국제 전략적 안정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번 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CNN은 이에 대해 "우선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초기 군사동맹 시험"이라며 "양국의 군사 협력관계는 이미 역사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했는데 이 훈련에는 수천 명 규모의 중국과 몽골 군대가 참여했다. '보스토크 2018'로 불리는 이 훈련은 푸틴과 시진핑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양자 회담을 할 때 시작됐는데,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의 전략 향구인 블라디보스토크에 군함을 파견해왔다.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nudr공원'

관음증·노출증 환자로 몸살

프랑스 파리에 있는 'nudr공원'이 관음증, 노출증 환자들로 방해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파리 동부에 있는 이 도시 최대 규모의 공원인 뱅센 숲에는 지난 2017년 나체주의자들을 위한 구역이 조성됐다.

나체주의자는 알몸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8천㎡에 가까운 규모의 이 구역에서는 매년 4~10월 옷을 벗는 것이 허용된다.

파리시 당국은 노출증이나 관음증 환자들이 nudr공원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행동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입구에 이를 강조하는 표지판도 설치했다.

그러나 이곳을 이용하는 나체주의자 다수가 관음증, 노출증 환자에 의해 방해 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불평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현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 경찰에 공원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나 정식 고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nudr해변과 nudr캠핑장 등 나체주의자들을 위한 공공장소가 많은 나라다. '프랑스나체주의연합'은 이 나라를 찾는 나체주의자들은 프랑스인 210만명을 포함해 470만명으로 추산한다. /연합뉴스



분수로 더위 피하는 파리 시민들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의 낮 최고기온이 이날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섭씨 41.2도를 기록한 가운데 프랑스 등 서유럽의 기온은 계속 올라 오는 25일(현지시간)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옆 트로카데로 분수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日닛산차, 스캔들·실적부진 전세계 1만명 감원

잇따른 스캔들과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 닛산자동차가 실적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직원 1만여 명을 감원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토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닛산차가 직원 최소 5천200명을 추가로 해고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월 닛산차가 미국 내 부진한 판매와 차 모델 개선을 위해 4천8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추가로 나온 것이다.

닛산차가 추가 감원을 단행하면 인력 감축 규모는 닛산차 전체 인력의 7%를 넘어 세계 된다. 닛산차는 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오는 25일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할 것

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닛산차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남미 등지의 일부 공장에서 감원이 이뤄질 것으로 교토통신은 예상했다.

닛산차는 앞서 2017년 무자격자가 최소 20년 넘게 출고 전 차량 검사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닛산차는 일본 내 차량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차량 15만여 대를 리콜했다. /연합뉴스

나이키 최초 러닝화 '문슈' 5억원에 낙찰

운동화 거래가 역대 최고

나이키 최초의 러닝화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인 43만7천500달러(한화 약 5억1천625만원)에 낙찰됐다고 AFP·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 소더비에서 팔려나간 이 운동화는 나이키 공동 창업주이자 육상 코치였던 빌 바워먼이 1972년 올림픽 예선전에 나가는 육상선수들을 위해 디자인한 '문 슈'(Moon Shoe)다.

당시 딱 12켤레만 제작됐으며 이날 경매에 나온 제품만 유일하게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더비 측은 운동화 거래가로는 세계 최고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경매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운동화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농구 결승전에서 신은 캔버스 농구화 조던의 사인이 들어있다. 이 농구화는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경매에서 19만373달러에 낙찰됐다.

'문 슈' 구매자는 캐나다 투자자이자 자동차 수집가인 마이클 나탈로 확인됐다. 나탈은 소더비가 처음으로 주최한 이번 운동화 경매에서 문슈 외에도 희귀 또는 한정판 운동화 99켤레를 85만달러(10억342만원)를 주고 한꺼번에 사들였다.

'피어리지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나탈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스포츠 역사는 물론 팝 문화에 있어 진정한 역사적 유물인 '문 슈'를 획득해 황홀하다"며 "문 슈"를 포함한 100켤레를 토론토에 있는 자신의 개인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초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성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45%) 18억7백8십만원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공장**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45%) 6억6천6백8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풍암동 1114번지 토지 : 1500.2㎡(453.811평) 건물 : 6759.99㎡(2044.897평) 감정가 : 65억2천3백5십만원 최저가 : 65억2천3백5십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